

제 6 강. 종교 개혁의 서막

그리스도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16 세기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있습니다.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한 종교의 자유,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 그리고 1054년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분열, 1095년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

아주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교회가 결정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 사건이죠. ‘종교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개혁자들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가톨릭의 관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교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의 분열’이었고, 결국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따로 분리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때, 종교 개혁은 성공한 개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새롭게 분리된 개신교가 개혁된 교회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느냐?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결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을 한답시고 떨어져 나간 개신교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중세 시대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고 개혁된 교회가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종교 개혁’은 성공한 개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분명 순수한 마음으로, 부패한 교회를 살리려는 열망과 열정이 개혁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나, 종교 개혁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이후 개신교는 전혀 계승하지 못했어요. 지금의 개신교는 성경 해석상의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교파로 서로 갈라졌고, 개별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 되면서, 교회가 일치 하지도 못했고, 또 수많은 이단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종교 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문제를 개신교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 개혁은 성공한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 개신교는 여전히 또다른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마나, 지금의 가톨릭 교회가 내적인 회개와 외적인 쇄신을 통해서, 보다 정통에 가깝고, 다른 교파들 보다 더 사도로 부터 계승된 교회가 맞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혁이 필요했던 만큼, 당시 교회가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했었던 거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아주 오랜 동안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종교 개혁은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갑자기 어느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루터 이전 부터 이미 오래 전에 종교 개혁의 필요성과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배경과 원인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과정인데, 어떻게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세 사회는 죽음의 공포가 전 사회를 휘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347 년 부터 4 년 동안 유럽에는 ‘흑사병’이 돕니다. 코로나 팬데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었어요. 쥐와 벼룩이 옮긴 페스트 균에 의한 급성 전염병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4 년 동안 유럽 인구의 3 분의 1 이 죽었어요. 세 명당 한 명 꼴로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1095 년 부터 약 200 년간 계속된 십자군 전쟁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1453 년에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이민족의 침공으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과 흑사병으로 떼죽음을 겪으면서, 200-300 년 동안 죽음의 공포가 사회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요. 과연 천국이 있는 건가? 그리고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오게 될 내세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지옥이나 천국 등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갖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에 대한 기도, 특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아주 강조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연옥’에 대한 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져요.

‘연옥’은 죽은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 생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정화의 시기나 정화의 장소를 말합니다. 연옥에서 수많은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들지 못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 영혼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유행이 퍼지게 됩니다.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과 조상님들,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주 중요 합니다.

개신교는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대목이 없기 때문에 그럴대요. 성경에는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는 초대 교회때부터 전해진 ‘사도 전승’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초대 교회 신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고, 그래서 죽은 영혼은 모두 부활해서 지상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믿었어요.

산이와 죽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소통된다고 믿었던 거죠. 특히, 하늘에 있는 성인들과의 통공을 믿어요. 사도 신경에도 나오죠.

초대 사도들 때부터 죽은 영혼을 기억하고 기도 했던 것이 전해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함께 사도로부터 전해진 ‘사도 전승’을 믿어요. 개신교는 ‘사도 전승’을 믿지 않고, 오직 ‘성경’만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천국을 희망하는 많은 신자들에게 교회는 구체적인 ‘확신’을 줘야 했어요. 그래서, 열심한 신자들에게는 ‘죄를 용서 받고, 천국이 보장 되었다는 확인서’를 줍니다. 이것을 ‘면죄부’라고 명명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 증명서’를 주잖아요. 세례 증명서는 행정 서류이지만, 사실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록인 거죠. 이것처럼, 당시 죽음의 공포에 놀려 사는 신자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증명서를 주는데, ‘모든 죄를 용서 받고 천국이 보장 되었다는 내용의 증명서’인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 진 거였어요.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이 보장 되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고백 성사를 잘 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정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십자군에 간다든지,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의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천국이 보장 되었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증서'를 만들어 준 것이, '면죄부' 였던 거죠.

착실하게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또 감사 헌금을 냅니다. 면죄부를 많이 발급하면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게 되죠.

나중에, 탐욕과 이기심이 많은 교회 성직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면죄부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 가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 중세 사회는 '르네상스' 시대였어요. '르네상스'는 문예 부흥 운동입니다. 14-16 세기 서유럽을 중심으로, 찬란 했던 예전의 로마 그리스 문화를 다시 복구하는 운동이었어요.

특히, 미술과 건축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룹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죠. 성당이나 왕궁 등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짓는 것이 유행합니다. 유럽에 엄청난 성당 건물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 진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듭니다. 그 천문학적인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는 '면죄부'를 엄청 팔아 대는 거예요. '면죄부'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내부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신대륙이 발견됩니다. 신대륙이 발견된 것은 당시 모든 사상과 이념을 송두리째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였습니다. 지구는 평평한 줄 알았고, 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낭떨어지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거라고 믿었죠. 이것이 '천동설'이죠.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근 것이라는 학설이 나옵니다. 둥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나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학설을 발표합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법, 윤리, 과학 등 모든 학문과 진리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진리라고 믿고 가르쳤던 '천동설'이 잘못된 것이라는 학설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이런 주장들을 교회는 모두 '이단'이라고 못박고, 갈릴레오를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유죄를 선언하죠.

갈릴레이가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 100년 쯤 전에, 비슷한 주장을 한 천문학자가 있었죠.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정반대의 사고를 갖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고 방식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쓴 책은 교회에서 모두 금지 서적이 되요.

그런데, 교회가 오류가 없다고 믿고 가르쳤던 진리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것을 증명해준 사건이 바로 신대륙의 발견이었어요.

교회가 가르친 진리에 오류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과 시대적 배경이 한데 어우러져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요.

정리해 보면, 전쟁이나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내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 받고 천국을 보장해주는 확인서'인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당시 산업이 발전하고, 르네상스라는 문화 회복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당시 유행에 맞춰서, 교회도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막대한 교회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 합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신대륙의 발견으로 교회가 확신했던 진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교회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 사건을 일으키는 인물이 등장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루터 보다 100 년 쯤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고,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신학자요, 사제였습니다.

1374 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 세 교황과 영국 왕 에드워드 3 세 사이에 세금 문제로 갈등이 불거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이 영국 왕을 교황청으로 부르는데, 이때 영국 왕의 사절단으로 위클리프가 함께 가요.

교황과 영국 왕실의 세금 문제를 논의하는데, 교황이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고, 고집도 세고, 너무 권위적이고, 대화가 전혀 안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위클리프가 교황에게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교황에게 '적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처음 붙인 사람이 위클리프예요. 이때부터 위클리프는 교회의 타락한 권력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오류를 지적합니다. 진리의 근원은 교회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라틴어는 성직자나 신학자들만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는 번역의 오류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생겼던 거죠.

위클리프는 그리스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을 대조하면서,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을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완전 금지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반대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위클리프는 끝내 영어 성경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의 근원은 교회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위클리프는 죽은 후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이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자들과 사제들이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영향이 결국, 100 년 쯤 지난 후 루터에게 까지 전해졌고, 루터가 결정적으로 1517 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를 포함해서 종교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신학자거나 사제들이었어요.

교회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경건하고 열성적인 사제들이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엄청난 분열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초대 사도때 부터 1500 년 이상을 지켜온 교회가 분리되고 새롭게 개신교가 만들어 집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늘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탐욕과 교만이 교회와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신앙이 변질 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인 16세기 루터의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개혁자들 입장에서 하는 말. 가톨릭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 개혁'이 아니라 사실상 '종교의 분열'이었고,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따로 분리되는 결과를 낳음.

종교 개혁으로 분리된 개신교가 개혁된 교회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도 못했고, 가톨릭 교회의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교 개혁은 성공한 개혁이 아님.

여전히 개신교는 성경 해석상의 문제로 수많은 종파로 다시 갈라지고, 많은 이단을 낳게 됨.

초기 종교 개혁자들은 분명히 순수한 마음으로, 부패한 교회를 살리려는 열망과 열정에 출발. 그러나, 종교 개혁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지금의 개신교는 전혀 계승하지 못함. 지금 개신교는 여전히 또다른 종교 개혁이 필요.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혁의 필요성과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음.

중세 시대, 전쟁이나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내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해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 받고 천국을 보장해주는 확인서'인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

산업이 발전하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당시 유행에 맞춰서, 교회도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고, 그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 수익을 챙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신대륙의 발견으로 교회가 확신했던 진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

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 인물, 존 위클리프 등장.

1374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사이에 세금 문제로 불거진 갈등을 통해서, 위클리프는 교황에게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림. 교황에게 '적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처음 붙임.

위클리프는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와 교황의 타락한 권력에 대항.

교회의 금기를 깨고, 위클리프는 최초로 영어 성경을 출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

위클리프는 죽은 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유죄 선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자들과 사제들이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 100년 쯤 지난 후, 루터는 결정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킴.